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한계 및 방향

박소영, 이경언, 유정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요 약》

제4차 교육과정 때부터 시작된 즐거운 생활 통합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간 통합의 취지를 본격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매번 형식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교과 병합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즐거운 생활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변천 과정을 검토하고,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 2학년에서는 새로운 통합의 방향인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2학년에서 적합한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통합 교육과정 체제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통합 모형으로 '공유 모형'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 공유 모형에 따른 통합 내용 구성의 예시 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즐거운 생활, 통합 방식, 내용 구성, 주제 중심 통합, 개념 중심 통합

I. 문제 제기

초등학교 1, 2학년에서의 통합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1-1987년)부터이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에 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한다는 취지 하에 통합 교과용 도서가 편찬된 것이다. 이 중에서 즐거운 놀이와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을 서로 연계시켜 구성한 것이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서이다. 이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으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개발·고시되었고, 이어진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일부 통합 방식에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즐거운 생활은 지금까지 체육, 음악, 미술의 교과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통합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논의되었던 주요 안건은 통합의 기본 정신을 살린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매년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형식적인 통합 교육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교과 병합의 형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자억 외(1997)도 제7차 통합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한계를 밝히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통합의 문제는 개정 때마다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었지만 거듭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체육, 음악, 미술의 세 교과의 통합에서 시작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된 통합 교육과정 개발팀이 중심이 되어 통합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에는 교육과정 해설서 외에 별다른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았다. 즉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필요에 의해 세 교과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고시 이후에는 즐거운 생활에 대한 교과 간 협동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 고시 문서와 교육과정 해설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상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고 있다(강재성, 1993; 교육부, 1994; 교육부, 1998; 조미혜, 1999). 또한 관련 세 교과 각각에서 즐거운 생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주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또는 교과용 도서에서의 체육, 음악, 미술 각각의 내용과 지도 방법, 평가에 대한 연구들(김상준, 1991; 김용환, 1989; 김춘일, 1991; 문광룡, 김청수, 1995; 이주연, 1999; 장창환 외, 1991; 조미혜, 2001; 조을혜, 1998; 황윤환, 1999)이었다. 이 선행 연구들은 각 시기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각 교육과정 개정 시기의 통합 방식의 특징과 이에 기초한 내용 구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변천 과정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대안적인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향후의 새로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 및 내용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변천 과정

실제로 통합 교과가 처음 도입된 제4차 교육과정 기에서는 교육과정 통합보다는 교과서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제5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의 통합과 함께 교육과정의 통합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통합의 방향은 제7차까지 이르고 있다. 제7차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통합의 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즐거운 생활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통합 취지를 살려 내용을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교과용 도서에서의 통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제5차, 제6차,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교육과정 시기별 통합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제5차,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시기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년별 내용 구성은 ‘놀이’,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이해 영역만이 차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 영역별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영역의 내용이 다른 유형으로 제시된 것 같지만 구체적인 하위 내용을 보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달리기, 구르기, 기구 이용하기 등이 몸의 움직임과 기초 기능을 익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놀이하기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제5차 교육과정의 표현 활동 영역에 제6차 교육과정에는 없는 신체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또한 제6차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어서 속하는 영역만 다를 뿐 구체적인 내용은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활동 내용으로 음악과 신체 활동을 통합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데 반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조형과 신체를 통합한 내용으로 아동극 활동이 첨가된 것이 다르다. 제5차 교육과정과 제6차 교육과정의 감상 활동 영역의 경우에도 모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표현 활동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론적으로 제5차와 제6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은 병렬식 통합 방식 또는 부분 통합 방식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놀이와 표현 영역의 내용은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신체 활동과 표현 활동 영역의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놀이와 표현 영역의 여러 가지 놀이하기 활동과 표현하기 활동은 각각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신체 활동 영역과 표현 활동 영역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통합 활동으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와 음악, 조형 활동을 통합한 아동극 놀이가 제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감상 영역 내용은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감상 활동 영역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놀이와 표현 활동을 감상하고 그 소감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만 제시되어 있는 이해 영역의 학습은 지식 위주가 아닌 놀이와 표현, 감상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움직임 요소와 음악적 요소, 조형적 요소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 영역은 따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표현, 감상 활동을 하면서 발견되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기본 틀은 학생들의 생활 체험을 중심으로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통합적인 의미를 보다 심화 확대하기 위해 신체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구분한 제6차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즉 건강한 심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즐거운 생활 교과의 성격에 부합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놀이와 표현, 감상, 이해의 영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들은 단위 시간 안에 분리되어 지도하기보다는 놀이와 표현, 감상 활동 및 각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야 할 학습 요소들을 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재조직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표 1〉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영역	내용 구성	통합 방식 및 특징
제5차	신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의 움직임 익히기(빠르기, 방향, 굽히기, 흔들기, 달리기, 구르기, 기구 이용) · 여러 가지 놀이하기(여러 사람과 어울리기, 조형놀이, 음악놀이, 안전과 질서 놀이) 	병렬식 또는 부분 통합(2개 영역간 통합 시도)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활동(흥내내기) · 음악 활동 · 조형 활동 · 음악+신체 활동(음악에 맞추어 신체 표현하기)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활동에 대해 반응하기 	
제6차	신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내내기 · 여러 가지 놀이하기(걷기, 달리기, 뽀뽀하기, 시설물이나 기구 이용, 계절 놀이, 민속 놀이, 안전과 질서 놀이) 	병렬식 또는 부분 통합(2개 영역간 통합 시도)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활동 · 조형 활동 · 음악+신체 활동(음악에 맞추어 신체 표현하기) · 음악+조형+신체 활동(아동극 놀이)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활동에 대해 반응하기 	
제7차	놀이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놀이하기(걷기, 달리기, 시설물과 기구 이용한 놀이, 흥내내기, 민속놀이, 악기놀이, 아동극 놀이) · 신체, 음악, 조형 활동을 통해 표현하기 	병렬식, 부분, 또는 완전 통합의 혼재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표현 활동에 대해 반응하기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움직임 요소 · 음악적 요소 · 조형적 요소 	

그러나 통합적 교육과정 철학의 반영은 이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 수준에서는 통합 교육과정에 근거한 세부 내용 요소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체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이라는 3개 활동 영역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음 <표 2>는 즐거운 생활 1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놀이와 표현’ 영역을 분석한 내용이다.

〈표 2〉 제7차 즐거운 생활 1학년 ‘놀이와 표현’ 영역의 내용 분석

영역	소영역	1학년 내용 요소(해당 교과 활동)
놀이와 표현	여러 가지 놀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 달리기 등의 놀이를 한다(신체적 활동). • 매트, 공 등의 시설물과 기구를 이용하여 놀이한다(신체적 활동). • 게임을 한다(신체적 활동). • 여러 가지 흉내를 낸다(신체적 활동). • 계절 놀이를 한다(신체적 활동). • 간단한 민속 놀이를 한다(신체적 활동, 조형적 활동). • 악기 놀이를 한다(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 • 간단한 어린이극 놀이를 한다(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
	여러 가지 주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 관하여 자유롭게 나타낸다(신체적, 조형적 활동). • 주변 생활에 관하여 자유롭게 나타낸다(신체적, 조형적 활동). • 안전과 질서에 관하여 자유롭게 나타낸다(신체적, 조형적 활동). • 음악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한다(음악적 활동). • 노래를 듣고 부른다(음악적 활동). • 그림 악보를 보며 리듬 합주를 한다(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 • 알리는 것, 장식품 등을 꾸미거나 만든다(조형적 활동). •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게 나타낸다(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활동).

<표 2>에서 나타나 있듯이, ‘놀이와 표현’ 영역의 내용 요소 자체가 신체적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 3개 활동 영역이 동시에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기보다는 각각의 활동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제시되거나 2개 활동 영역(예: 신체적 활동과 조형적 활동, 음악적 활동과 조형적 활동)이 통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내용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목표 달성에 알맞은 활동 내용으로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통합·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국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련의 통합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해야 할 교육과정은 병렬식 또는 부분적인 통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본래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은 교과서 또는 교사 수준의 통합 교과 수업으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제한된 방식으로 통합 교육과정이 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두개 교과 간(예: 신체적 활동과 음악 활동, 음악 활동과 조형 활동 등)의 통합 교육 또는 한 가지 활동 영역 중심의 개별(즐거운 생활-체육, 즐거운 생활-음악, 즐거운 생활-미술) 교육 방식이다. 이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신체적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이 완전한 통합된 방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제한적 통합 방식’(이 의미는 두개 영역의 통합으로 운영되거나,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뜻한다)으로 운영되고 있다.

Ⅲ.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한계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통합 교과와 대상은 제4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즐거운 생활은 다른 통합 교과와는 달리 제4차에서 제7차까지 체육, 음악, 미술 3개 교과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일관성 있게 머물러 왔다.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의 경우 통합 교과와 대상이 자주 변경되어 왔던 점과 비교한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동안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처음 통합이 시작되었던 제4차보다는 제5차, 제6차를 거치면서 반성과 재검토, 탐색 과정 등을 통해 통합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 및 내용 구성의 한계를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통합 모형의 부재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먼저 이영만(2001)은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과거의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과 달리 완전히 탈교과적인 내용 구성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통합 교과를 각각 독립된 교과들이 상호 관련지어 새로운 내용과 방법으로 재구성되거나 창조되는 하나의 새로운 교과라고 설명한다. 이전의 통합 교과는 교과간의 통합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 교과의 개념 체계, 요소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간이 물리적 결합이나 집합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과 개념이 교과간의 통합 개념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 운영’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한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을 기본 정신으로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 따라 ‘활동 주제 중심의 탈교과적인 통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탈교과적인 내용 구성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이 과거의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해결하지 못한 채 주로 명시적 차원에서 탈교과적인 통합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통합에 그칠 뿐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여전히 체육, 음악, 미술 교과(즐거운 생활-체육, 즐거운 생활-음악, 즐거운 생활-미술)로 운영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승호, 1999, 1998; 유한구·김승호, 1998).

이는 아직도 통합 교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은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을 ‘흥미 중심의 통합’, ‘표현 중심의 통합’, ‘경험 중심의 통합’, 그리고 ‘활동 중심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이 과연 탈교과적인 내용 구성으로 이어지고 실현되었는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활동 중심의 주제에 의한 통합 방식은 탈교과적일 수 있지만, 전 교과의 탈교과적인 것이지 세 교과(체육, 음악, 미술)만의 탈교과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즐거운 생활 교과라는 통합 교육과정이 관련 세 교과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 교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모형이 아니라 즐거운 생활만의 ‘활동 중심 주제에 의한 통합 모형’이 있을 때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이론적인 모형에 근거할 때 또한 실천적 상황에서도 보다 완전한 탈교과적인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과거의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이론적 기초가 되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모형이 명확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를 안내하는 개념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Jewett, Bain, Ennis(1985)에 따르면, 교육과정 모형은 특수한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 내용의 선택, 구조, 계열성을 결정 근거를 제공해 주는 체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사조를 반영한 교육과정 모형이 분명히 설정될수록 교육과정 개발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통합 교과로서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과거의 교육과정처럼 실질적인 교과 간의 통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병렬식 또는 부분적 통합 방식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초기부터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이나 통합 모형의 합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합 교과를 결정하였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역시 통합 모형을 만들기보다는 놀이, 주제, 활동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은 교육과정 모형이 부재된 상황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은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성격 부분에서는 즐거운 생활의 교과를 ‘활동이나 주제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통합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의 통합 방식이나 통합 방식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정 내용의 대영역에서는 신체적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이라는 3개 활동 영역간의 공통 주제인 ‘놀이와 표현’, ‘감상’, ‘이해’라는 교육과정 내용의 대주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합의 방식도 신체적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이 완전하게 통합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의 중영역에서는 통합의 방향이 주제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 개념 중심, 그리고 활동 중심’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합의 방식은 3개 활동 영역간의 완전 통합, 2개 활동 영역간(예: 신체적 활동과 음악적 활동, 음악적 활동과 조형적 활동 등)의 부분 통합, 혹은 각 3개 활동 영역이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병렬식 통합으로 다양한 통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소영역에서는 활동 중심 또는 개념 중심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통합의 방식도 3개 통합 방식(완전 통합-세 교과와의 통합, 부분 통합-두 교과와의 통합, 병렬식 통합-한 교과씩 병렬)이 혼재되어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러한 통합의 방향과 통합의 방식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철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즐거운 생활 통합 모형에 의해 통합 방식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방식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통합 방식의 혼재’로 보여지는 것이다.

〈표 3〉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서의 통합 방향 및 통합 방식

교육과정 영역	내용 구성	통합 방향	통합 방식
대영역	○ 놀이와 표현 ○ 감상 ○ 이해	주제 중심	완전 통합
중영역	· 여러 가지 놀이하기 · 여러 가지 주제 표현하기 · 서로의 활동과 작품 설명하기 · 문화 및 체육 활동 관람하기 · 신체적 움직임 요소 이해하기 · 음악적 요소 이해하기 · 조형적 요소 이해하기	주제 중심 활동 중심 개념 중심	병렬식 통합 부분 통합 완전 통합
소영역	- 걷기, 달리기, 뛰뛰기 등의 놀이를 한다. - 재미있는 민속 놀이를 한다. - 여럿이 악기 놀이를 한다. - 어린이극 놀이를 한다. - 자연의 특징을 살려 다양하게 나타낸다. - 음악에 어울려 신체 표현을 한다. -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나타낸다. 등등	세부 활동 중심 개념 중심	병렬식 통합 부분 통합 완전 통합

2. 인접 학년 교육과정 내용과의 비위계성

일반 교육과정 개발과 마찬가지로 통합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인접 학년간 위계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결과적으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자체 개발에 전력을 투자한 나머지 인접 학년간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즉 즐거운 생활 통합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치원과 ‘우리들은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과의 위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학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내용은 유치원과 비교할 때 1학년으로서는 너무 낮은 수준의 내용이거나 ‘우리들은 1학년’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 체육, 음악, 미술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박순경 외, 2002). 이는 「즐거운 생활」 교과와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교육과정 개발 접근 방식이 현저히 다른데서 출발되었다고 본다.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 통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의 내용 지식 구성보다는 ‘주제 중심과 흥미 중심 활동’으로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각 3개 교과는 교과의 ‘개념 중심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다. 박순경 외(2002)의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3학년 1학기 때 체육, 음악, 미술, 과학 교과서의 한 두 단원을 제재 중심의 활동 단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내용간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필요하다면, 이는 2학년 2학기 즐거운 생활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2년간의 즐거운 생활은 세 교과 입장에서 볼 때는 교과적 내용의 공백기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즐거운 생활 통합 교육과정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간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현재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과거의 제5차, 제6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간의 지도 내용의 계열성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대부분 1, 2학년이 같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단지 2학년 과정에 일부 활동을 첨가하거나 일부 활동을 수준 높은 활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상의 내용 위계가 큰 차이가 없다보니, 1, 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용 도서에서 역시 그 내용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 활동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을 취하다보니, 특히 교과용 도서의 경우 활동 주제의 위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의 위계가 아닌 계열, 여건 등을 고려한 주제의 나열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에 기초하여 단원이 구성됨으로써 1, 2학년의 단원 내용 간의 위계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못하였다. 활동 주제 중심의 통합적 단원을 구성하면서 1, 2학년의 위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방법상

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통합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유 중 하나가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 단계에 맞는 편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지만, 1, 2학년은 미분화되었고 3학년부터는 분화되었다고 구분하여 볼 수는 없다. 통합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운영된다면 유치원과의 연계 및 위계, 이후 3학년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과의 연계 및 위계, 1, 2학년 내용간의 위계 문제 해결 방안이 좀더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 및 내용 구성의 방향

이 부분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 및 내용 구성의 한계를 기초로, 대안적인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년별 차별화된 통합 방식 도입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다학문적 통합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학문적 통합 방식은 여러 현상이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 방식이다. 따라서 내용을 구조적으로 묶어 통합을 하는 간학문적 통합 방식이나 교과의 구조를 무시하고 학습자 중심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탈학문적 통합 방식과 비교할 때 통합의 정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도 ‘무리한 통합보다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7차 즐거운 생활이 다학문적 통합 방식을 따른다면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적 존재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다학문적 통합 방식은 문제나 주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문을 다양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음악, 미술, 체육 교과만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학문적 통합 방식을 따른다면 굳이 체육과 음악, 미술이 모여 통합 교과를 이루어야 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것이다.¹⁾

1) 이 연구에서는 현행 체제를 기본 전제로 하여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을 논하는 것이므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고(稿)를 달리하여 계속하도록 한다.

즐거운 생활이 통합이 아닌 교과 병합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이 한정된 통합 방식을 따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내용과 제재 구성을 분석해 보면(<표 4> 참조), 신체적 활동과 음악적 활동, 그리고 조형적 활동이 모두 통합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두 활동 영역간의 통합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의 내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 교과 내에서 교과 병합이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은 단지 ‘무리한 통합’을 하지 말라는 권고보다는 ‘무리한 통합’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Fogarty는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 통합의 방식을 단일 교과 내의 유형, 여러 교과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 학습자 내부 및 학습자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여러 교과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은 즐거운 생활의 통합 방식인 다학문적 통합 방식과 여러 교과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다학문적 통합 방식은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 교과간의 연계 유형은 주제 중심의 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Fogarty는 여러 교과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모형을 계열형, 공유형, 거미줄형, 실로 펜 형, 통합형이라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이영만, 2001).

이 통합 모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교과들이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섯 가지 방식을 유형화하면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인 계열형과 거미줄형, 개념(또는 기능, 태도) 중심의 통합 방식인 공유형과 통합형, 그리고 메타 교육과정(김재복, 2000; 이영만, 2001)으로서의 실로 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여러 교과간의 연계를 통한 유형'의 통합 모형

통합 대상	모형	통합 방식	특징
주제	계열형	주제의 순서를 재배열하여 여러 교과의 비슷한 단원들을 이어서, 혹은 병렬적으로 가르침	수업의 결과 통합이 이루어짐
	거미줄형	특정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각 교과에서 추출하여 통합	수업 내에서 통합이 이루어짐
개념 (또는 기능, 태도)	공유형	광역 교과 내에서 공유하는 개념, 기능, 태도를 중심으로 통합	광역 교과의 특성으로 통합
	통합형	여러 교과들 간에 중복되는 개념, 기능, 태도를 추출해서 통합	교과들 간에 공통점이 있을 때 통합이 가능
메타 교육과정	실로 펜 형	모든 교과 내용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메타 교육과정을 초점에 두고 통합	교과의 내용을 연결시키지 않음

위의 <표 4>에 의하면 주제 중심의 통합으로서의 계열형과 거미줄형은 이미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즉,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서에서도 특정 주제를 한 단원으로 설정하여 그 단원 안에서 신체적 활동, 음악적 활동, 조형적 활동이 차시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계열형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완벽한 형태는 물론 아니지만²⁾ 거미줄형은 현행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통합 방식인 주제를 중심으로 신체적 활동과 음악적 활동, 그리고 조형적 활동을 통합한 방식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통합 방식은 개념과 메타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 통합 방식이다. 그런데 메타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내용과 모든 교과 내용의 핵심적 요소를 통해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미줄형과 마찬가지로 이미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의 통합으로 제한이 되어 즐거운 생활 교과 내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며, 완벽하게 그 의미대로 통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개념을 통한 통합 방식이 새롭게 제안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방식으로 ‘주제를 통한 통합 방식’과 ‘개념을 통한 통합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5> 참조). 앞서 논한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 및 내용 구성의 한계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인접 학년과의 위계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3학년부터는 즐거운 생활 교과가 체육, 음악, 미술 교과로 나뉘어 교과 특성과 전문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2학년 과정에서 각 교과의 기초적 개념이 습득되지 않으면 3학년부터 시작되는 교과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통합적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위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합 대상에 있어서 주제 중심의 통합은 1학년에, 개념 중심의 통합은 2학년에 적합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방식에 기초하여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1학년에서는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에 따라, 2학년에서는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인접 학년간의 위계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5〉 학년별 차별화된 통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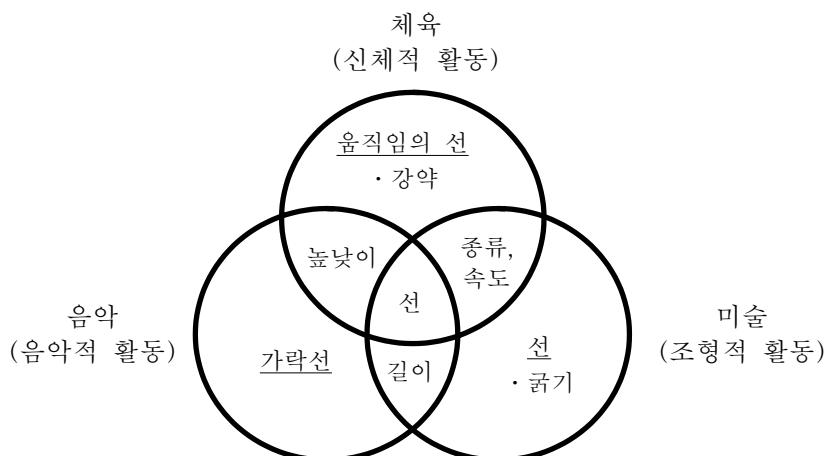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

2) 다학문적 통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미줄형에 의한 통합 방식에 따르더라도 굳이 음악, 미술, 체육만이 통합될 필요는 없다.

2.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에 따른 공유형 모형의 내용 구성 사례

1학년의 주제 중심 통합과 2학년의 개념 중심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구성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이미 교과서에 주제 중심 통합으로서 구현되고 있는 계열형과 거미줄형을 제외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구현하기 힘든 ‘실로 켜 형’을 제외한 ‘공유형’과 ‘통합형’을 2학년의 개념 중심 통합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개념 중심 통합 모형인 공유형과 통합형은 그 방식에서 광역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가 아니면 여러 교과들 간에 중복되는 개념으로 통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용(현행 체육과의 한 영역)과 음악과 미술은 예술 교과로 광역 교과가 되어 공유형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지만, 통합형에 따르면 교과들 간에 공통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므로 교과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우선되는 것이다. 결국 즐거운 생활은 교과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형의 의도를 살리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즐거운 생활 교과의 통합을 전제할 때 통합형의 결과물이 공유형의 결과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된다. 이에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에 기초하여 내용 구성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즐거운 생활의 또 다른 내용 구성 방안으로, 특히 2학년의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개념 중심 통합으로서의 공유형’을 근거로 내용 구성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공유형’은 두 교과를 교차하는 공통성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고, 즐거운 생활은 세 교과가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활의 교과 구성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공유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된 ‘공유형’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유형’이 적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즐거운 생활의 교과 형태에 맞게 변형된 것이다. 즐거운 생활을 위해 변형·적용된 공유형 모형에 따라 2학년 대상의 내용 구성 예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 변형된 공유형에 따른 '즐거운 생활' 2학년 통합 예시

위의 모형에서는 무용과 음악, 미술을 '예술'이라는 광역 교과로 보고, 그 세 교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선'을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선'의 개념에 따라 각 교과에서 학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2학년 수준에 맞추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만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활동 요소로는 움직임의 선 중에서 강약, 종류, 속도를, 음악적 활동 요소에서는 가락선 중에서 길이와 높낮이를, 조형적 활동 요소에서는 선 중에서 굵기, 종류, 속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신체적 활동과 음악적 활동에, 또 어떤 것은 신체적 활동과 조형적 활동에, 그리고 음악적 활동과 조형적 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모형에 의하면 체육(무용), 음악, 미술의 세 교과를 통합하거나 또는 두 교과씩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념에 따른 모형에 의하면 여러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과 그 개념에 따라 각 교과에서 활용되는 요소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특정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분석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제4차 교육과정 때부터 시작된 즐거운 생활 통합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간 통합의 취지를 본격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매년 형식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교과 병합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즐거운 생활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의 변천 과정을 검토한 결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은 각 교육과정 때마다 부분적으로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통합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거의 대동소이하게 교과 병합 형태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7차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파악하였다. 본 글에서 논의된 한계점은 통합 모형의 부재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과, 인접 학년 간 교육과정 내용의 비위계성이라는 2가지 측면이었다.

이 2가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제 중심의 통합 방식’, 2학년에서는 새로운 통합의 방향인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2학년에서 적합한 ‘개념 중심의 통합 방식’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통합 교육과정 체제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통합 모형으로 ‘공유 모형’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 공유 모형에 따른 통합 내용 구성의 예시 안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 제안한 학년별 차별적인 통합 방식의 방향, 내용 구성의 방향, 그리고 통합 모형에 따른 통합 내용 구성의 예시 안은 차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차기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에 대한 근본 목적과 취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즐거운 생활을 통한 통합 교육 방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통합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교과 교육과정으로 교육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차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관례적으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가 통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또 다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즐거운 생활 통합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전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차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전면 개정 또는 수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개정 작업 때 마다 3개 교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육학 전문가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통합 방식과 내용 구성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발전

적인 변화가 거의 없이 유사하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와 현재의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개발의 근본 취지가 범 교과적인 통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통합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면 반드시 관련 교과 전문가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즐거운 생활 교육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적용되고 있고, 유치원(1년 또는 2년)에서도 대부분의 교육이 통합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이 통합 교육을 받는 기간은 3년 혹은 4년으로, 결코 짧지 않은 년 수임을 알 수 있다. 통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합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칫 통합으로 인해 소홀히 지도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내용이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현재 몇몇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의 통합 교육과정과 3학년의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2학년 내용은 2학년 학생 수준보다 다소 하향되어 구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통합 교육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학년 1학기는 현재와 같은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2학기에는 본 글에서 주장하는 ‘개념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의 내용 구성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로 독립하여 지도하되 1학년 2학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념 중심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재성(1993). 제3장 즐거운 생활. 한명희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부(1989). **국민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4).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 실과, 특별활동**. 교육부.
- 교육부(1995).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활동**.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0).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구자익 외(1997). **제7차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 김상준(1991). 통합 교과 즐거운 생활 지도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미술과 영역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7, 5-20.
- 김승호 (1998). 통합 교과의 이론적 근거. **교육과정연구**, 16(1), 349-376.
- 김승호 (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통합 교과의 성격. **초등교육연구**, 13(1), 47-65.
- 김용환(1989). 국민학교 새 교과서의 특성과 효율적인 활용방법: 즐거운 생활. **교육개발**, 60, 46-52.
- 김윤희(2000). **초등학교 제6·7차 교육과정과 통합 교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사.
- 김춘일(1991). 통합교육과정에서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즐거운 생활의 경우를 중심으로. **대구대특수교육연구**, 18, 57-88.
- 문관룡·김철수(1995). 제6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즐거운 생활, 체육, 음악, 미술과를 중심으로. **광주교대초등교육연구**, 10, 5-24.
- 문교부(1982). **즐거운 생활 1-1, 1-2, 2-1, 2-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문교부(1988).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 박순경 외(2002).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II):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RRC 2002-1.
- 유한구, 김승호 (1998). **초등학교 통합교과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만(2001). **통합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이주연(1999).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미술 영역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15, 313-329.
- 장창환 외(1991). 즐거운 생활 교과 지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과제. **서울교대한국교육논총**, 3, 83-114.
- 조미혜(1999). 제4장 즐거운 생활. 김재복·이경환·허경철 편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270-308.
- 조미혜 (2001). 학교체육에서의 통합 교육과정 ‘즐거운 생활’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5(1), 183-192.
- 조영태(1987). IV. 즐거운 생활. 광병선 외.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을혜(1998). 즐거운 생활의 활동 주제별 통합 학습을 통한 교수·학습의 효율성 신장.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연구논문집**, 57, 284-299.
- 최경노(1997).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황윤한(1999).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즐거운 생활 교과 운영: 생활 경험 활용을 중심으로. **광주교대초등교육연구**, 14, 325-374.
- Forgarty, R.(1991). Ten Ways to Integrate Curriculum. *Educational Leadership*, 49(2), 61-65.
- Jewett, A. & Bain, L. (1985). *The curriculum process in physical education*. Madison, WI: Brown and Benchmark.

• 논문접수 : 2004년 4월 14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5월 18일 / 게재 승인 : 2004년 6월 7일

ABSTRACT

The Way to Integrate and Design the Curriculum Contents of 'Pleasant Life' in Elementary School

So-Young Park, Kyung-Eon Lee, Jeong-Ae You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o date, little effort is made to analyze the ways for integrating and designing curriculum contents of 'Pleasant Life' in the 1st and 2nd grade. For this reason, the integration ways of 'Pleasant Life' curriculum is perfectly not considered as the real integrated curricula among 'Physical Education', 'Music', and 'Visual Art'. Also, the limitations of curriculum contents in 'Pleasant Life' are indicated such as the curriculum development without an appropriate integration model, inconsistent curriculum organiz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the 1st grade, and the 2nd and 3rd grades, and incomplete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 This paper has suggested two different ways to integrate and design the curriculum contents. One is 'theme-based' for the 1st grade and the other is 'concept-based integration' for the 2nd grade. In especially, the shared model to implement the concept-based integration is proposed for the 2nd grade. Finally, this paper demonstrat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hared model.

Key Words : pleasant life, integration way, content design, theme-based integration, concept-based integration